

##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6.

# “영적 무장의 영성”

(에베소서 6:10-13)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로 발달한 첨단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은 갈수록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살인, 가정 파괴 등 끔찍한 범죄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는 원인은 인간의 죄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는 순례자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의 무기고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뒤 다시 순례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새로운 대적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실체와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 I.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휴전 상태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듯, 어둠의 세력은 분명히 실재합니다. 초기 조선에 왔던 이성적인 선교사들조차 성경 말씀대로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악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II. 대적 마귀의 정체와 목표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고, 교회는 군대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대적 사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요 10:10)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간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부부, 목회자와 성도,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마귀는 주님 재림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 5:8-9).

### III. 마귀의 전술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는 네 분야, 즉 통치자들(정치권력 배후의 영), 권세들(사탄 수하의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열등감, 두려움, 교만으로 개인을 장악하는 세력)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 IV. 첫 번째 명령: 주 안에서 강건하라

전신갑주를 입기 전, 성경은 먼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10절)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군인이 허약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은 '주 안에,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배와 개인 기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한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내면의 강건함 덕분이었습니다.

#### V.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취사선택이 아닌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인간과 인생, 창조와 십자가의 진리로 묶일 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의의 호심경(흉배):**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십자가 복음이 주는 참된 평안으로 무장해야 거친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매일 일상을 시작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를 보호하십시오. 이미 받은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장차 누릴 구원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매주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예리한 성령의 검을 준비하십시오.

이 전신갑주 목록에 우리의 '등'을 보호하는 무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절대 등을 보이며 영적으로 비겁하게 후퇴하지 말라는 뜻인 동시에, 서로의 등은 우리가 함께 지켜주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비판 대신, 사랑과 기도로 서로의 무방비한 등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18절)이 곧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